

~ 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방향성 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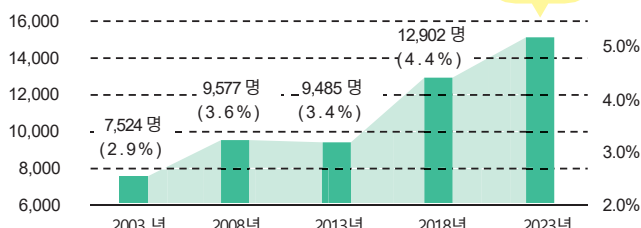
수립 취지

쓰루미구에서는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2008년도에 '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추진 액션 플랜'을 수립하고, 지역, 사업자, 단체 등의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 후, 거주 외국인이 더욱 증가하고 다국적화가 진행되어 사회 전체도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구민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, 2021~2023년도에 걸쳐 쓰루미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본 지침은 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추진 액션 플랜을 재검토하고, 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

쓰루미구 거주 외국인 현황

[외국인 수 추이] 주민기본대장 각 연도 12월말 현재



지난 20년 동안 구내 외국인 수와 비율은 거의 두 배로 증가, 현재 구민 20명 중 1명이 외국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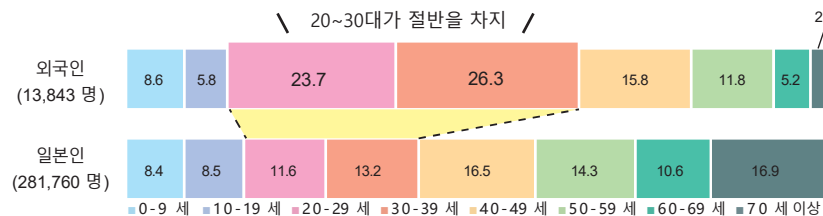
[거주 외국인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국가 · 지역 수] 주민기본대장 매년 12월 말 현재



국적도 다양해지고, 언어, 문화, 관습 등의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요구사항과 필요한 지원도 다양해졌다.

— 2021년도 쓰루미구 외국인 수 기초조사 · 주민기본대장에서 —

[연령 구성별 비율] 주민기본대장 2021년 1월 1일 현재



구내 거주 외국인은 20 · 30대가 50%를 차지하며, 평균 연령은 35.20세. 일본인을 포함한 구 전체 평균 연령 44.36세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다.

거주 외국인의 목소리

살기 편하다고 느낀 점

-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친해지기 쉽다. 같은 나라의 친구나 일본인 동료와 정보 교환도 하고 있다.
-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부모들은 친절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준다.
-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 상담하고 병원을 소개받기도 했다.
- 일본어 교실 선생님이 일본에서의 생활과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도 가르쳐 줬다.
- 지역 행사에서 모국의 음식이나 음악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. 유학생이 축제에 참가하는 지역도 있다.

생활 속 고민과 니즈

- 일본어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?
근처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.
- 생활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?
다국어로 알기 쉽게 전달해 주면 좋겠다.
- 서류는 중요한 내용만 알기 쉽게 작성해 주면 좋겠다.
- 구청이나 병원은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. 등
-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?
입학이나 수험의 시스템이 어렵다.
- 재해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?
- 개호보험, 연금 등 일본에는 모국에는 없는 제도가 문화가 많기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. 등
- 외국인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나 일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.
- 자신의 기술을 살린 일, 활동을 하고 싶다.
-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놀이터나 이벤트가 궁금하다.
- 자치회, 반상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. 등

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포인트

① 커뮤니케이션 지원
언어, 정보 수집 기회, 학습 지원 등

② 생활지원
주거, 취업, 복지, 방재 등

③ 지역 · 사회 참여 촉진
지역 활동 참여, 기술 발휘 등

- 지향하는 모습 -

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을, 쓰루미

다문화 공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행정, 지역, 사업가 및 단체가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3가지 시책

① 커뮤니케이션 지원

시책1

정보 접근과 상담 · 학습 지원
강화를 통한 관계 만들기

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권리 · 의무를 알 수 있도록 다언어화 및 발신 방법의 고안, '쉬운 일본어'의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, 일본어 학습의 기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예를 들어...

- 생활 정보의 다국어화 및 번역 도구의 강화, '쉬운 일본어'의 적극 활용
- 웹 · SNS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정보 발신
- 지원 기관 및 매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니즈 파악
- 일본어 지원 자원봉사자 육성 및 학습 수요와의 매칭 추진

② 생활 지원

시책2

개개인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
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기

각 생애주기와 거주기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, 언어, 제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외국인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예를 들어...

- 일상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 대응
- 주거 · 직장 찾기 지원 및 애프터 서비스
- 의료 · 보건 · 복지 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
- 보육 · 교육 시스템 확보
- 재난 대비의 보급과 계발 · 지원 체제의 강화

③ 지역-사회 참여 촉진

시책3

외국인, 일본인이 서로 배우고
서로 돕는 지역 만들기

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,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자기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문화 공생 풍토를 조성합니다.

예를 들어...

- 기본 지침의 숙지를 통한 공생 의식 함양
- 다국어 도구의 보급을 통한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 기회 촉진
- 외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문화 · 습관을 알고 교류하는 장 만들기
- 외국인의 경험 ·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
-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와 외국인 인재를 매칭하는 시스템 만들기

쓰루미에서 다문화 공생에 힘쓰는 사람들

@구내 음식점, 상점, 우체국 etc

외국인 대상
정보 발신 강화
정보 발신 거점
정비 등



@쓰루미구청의 모든 창구

다국어 지원 및
쉬운 일본어 추진
번역기 활용, 자료의
다국어화 등



@NPO 법인, 자원봉사 단체 etc.

외국인 자립을
위한 지원
학습지원, 진학 ·
자격증 취득 지원
등



@쓰루미 국제교류 라운지
@일본어 지원 거점 시설
쓰루미 히마와리
etc.

안심하고 생활할
수 있도록 지원
창구 상담 ·
일본어 교실 등



@국제학생회관 & 지역 자치회 · 반사회 etc.

다양한 문화 교류, 외국
인이 활약할 자리 만들기
교류 행사 등



'쓰루미구 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' 수립 경과

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 선언

2008년도
다문화 공생 추진 액션 플랜2021년도
외국인 수 기초조사
(객관적 데이터)2022 · 23년도 외국인 인식조사
(청취 조사)
지원기관 · 단체/외국인 구민

지침 수립 작업

전문가들의 조언
관계기관 · 외국인 구민 간담회2024년도
다문화 공생 기본 지침

<본 지침에서 '외국인', '국가' 표기>

[외국인] '국적이 일본국적이 아닌 사람', '외국에서 일본에 온 사람', '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'(예: 보호자가 외국 국적인 사람) 등, 일본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.

[국가]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, 지역을 말합니다.